

국민계정 통계의 기준년 개편(5년 주기)에 따라 주요 재정·금융지표의 국내총생산(GDP)대비 비율 개선

- '23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 2,236 → 2,401조원으로 확대
- '23년 국가채무비율 50.4 → 46.9%, 가계부채비율 100.4 → 93.5%로 하락

'24.6.5일(수) 한국은행은 2000~2023년 국내총생산(GDP) 등 국민계정 통계를 기준년 변경(2015→2020년)을 반영하여 개편하였다. 기준년 개편은 국민계정 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5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개편 결과, 최근 우리 경제의 구조변화가 반영되면서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23년 기준 2,236조원에서 2,401조원으로 증가하고, 1인당 국민소득 규모도 '23년 33,745불에서 36,194불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다른 나라의 통계 변경이 없거나 크지 않을 경우, 한국은행(ECOS 경제통계시스템) 등에 따르면 '23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세계순위가 당초 14위에서 12위로 상승한다.

* 기준년 개편에 따른 '23년 달러 기준 명목 GDP 변화(십억불): (한국) 1,713 → 1,839

** '23년 명목 GDP 세계순위(십억불,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호주<12위>) 1,797 (멕시코<13위>) 1,789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따라 주요 재정·금융지표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개선되었다. '23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4%에서 46.9%로 하락(△3.5%p)하고, '23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비율은 △3.9%에서 △3.6%로 변동(+0.3%p)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3년말 기준 100.4%에서 93.5%로 하락하고, '22년말 기준 104.5%에서 97.3%로 하락하는 등 100%를 하회하는 모습이다. GDP 대비 기업부채비율의 경우, '22년말 기준 121.0%, '23년말 기준 122.3%로 120% 초반대 수준이었으나, 개편 후 각각 112.6%, 113.9%로 하락하여 110% 초반대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비율(%)	관리재정수지비율(%)	가계부채비율(%)	기업부채비율(%)
'20년 (당초→수정)	43.6 → 41.1	△5.8 → △5.4	103.0 → 97.1	109.8 → 103.6
'21년 (당초→수정)	46.7 → 43.7	△4.4 → △4.1	105.4 → 98.7	114.2 → 106.9
'22년 (당초→수정)	49.4 → 45.9	△5.4 → △5.0	104.5 → 97.3	121.0 → 112.6
'23년 (당초→수정)	50.4 → 46.9	△3.9 → △3.6	100.4 → 93.5	122.3 → 113.9

담당 부서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승한 (044-215-2710)
		담당자	사무관	연정은 (jey0903@korea.kr)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	책임자	과 장	김현익 (044-215-2750)
		담당자	사무관	이은우 (felizlew@korea.kr)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	책임자	과 장	민경신 (044-215-2810)
		담당자	사무관	김문수 (sin20219@korea.kr)
	재정정책국 재정건전성과	책임자	과 장	한주희 (044-215-5740)
		담당자	사무관	정윤희 (yoonhong@korea.kr)

